

대기업 주총시즌 개막... 관전 포인트는

#감염예방 #전자투표 #이사회 독립 #주주배당 강화

주요 현안 산적해 강행 움직임
삼성·현대모비스 18일 진행
'슈퍼주총데이' 20일엔 205곳

대기업들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강행한다.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지만 처리해야 할 현안도 산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자투표를 도입한 가운데,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만반의 준비도 갖추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공포가 여전히 큰 상황에서 무리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단, 올해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데다 특별히 논란이 될 안건도 없어서 실제 현장에 참석하는 주주 숫자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18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1회 정기 주주총회를 연다. 지난해까지 서울 서초사옥에서 열었다가, 주주가 크게 늘어나면서 올해부터 장소를 옮겼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삼성 전자 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61만274명에 달한다.



삼성전자가 2019년 제50기 주주총회를 열고 소액주주들 목소리를 경청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이번 주총에서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인 한종희 사장과 경영지원실장 최윤호 사장을 사내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창사 이후 처음으로 외부 인사인 박재완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한 후 첫 주총이기도 하다.

현대자동차그룹도 18일 현대모비스에 이어 19일 현대차가 서울 양재 현대차 본사에서 정기 주총을 예상대로 개

최한다. 올해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했으며, 주총 현장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주총으로 정의선 수석 부회장 체제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올해로 임기를 마치는 정몽구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 회장이 사내 이사에서 내려오면서 이사회 의장도 21년만에 바뀌야 하는 상황이라 이번 주총에서 재선

임될 정 부회장이 이 자리에 오를 전망이다. 현대차 경영권을 위협해왔던 엘리엇도 올 초 지분을 모두 매각한 상황이어서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순항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요일인 20일은 이른바 '슈퍼주총데이'로 일컬어진다. 이번주 주총을 여는 314곳 중 205개사 일정이 몰렸다.

삼성그룹의 지주사격인 삼성물산도 이날 서울 상일동 글로벌엔지니어링센터에서 주총을 진행한다. 상법상 사외이사 임기가 6년으로 축소된 데 따라, 새로운 사외이사 3명을 선임하는 게 핵심이다.

SK그룹도 같은 날 SK하이닉스를 시작으로 슈퍼 주총 데이에 동참한다. 지주사인 SK씨는 25일 주총을 연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주총에서 이석희 사장을 사내이사,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고 사외이사 2명을 새로 선임하는 내용을 결의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주주들에 그간 실적과 미래 계획을 소개하며 코로나19 공포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사업장 출입을 엄격히 제한

하고 좌석 간격을 확대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주주들에게도 통지했다.

LG그룹도 이날 LG화학과 LG디스플레이가 주총을 열면서 주총에 돌입한다. LG전자가 26일, LG씨는 창립기념일인 27일 주총을 예정했다.

LG화학은 LG 권영수 부회장을 기타 비상무이사로 새로 선임하는 안건을 핵심으로 한다. 권 부회장은 LG에서 40여년을 근무한 대표 'LG맨'으로, '뉴 LG'를 이끄는 주요 경영진으로 꼽힌다. 재계에서는 권 부회장이 비상무이사로 선임된 후 LG화학 이사회 의장도 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효성그룹 지주사인 효성도 서울 공덕동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강행한다. 특히 효성은 이번 주총에서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총괄사장 사내이사 재선임을 논의하게 된다. 오너 일가 지분이 절반을 넘는 데다, 지난해 영업이익 1조원 클럽에 재진입하는 등 실적적으로 의결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단, 지난해 검찰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위반 혐의로 불구속되는 등 송사가 이어지고 있어서 반대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재홍 기자 juk@metroseoul.co.kr

현대차, 투르크메니스탄에 버스 추가 공급

대형버스 '뉴 슈퍼 에어로시티'
기존 1200대 이어 400대 계약

현대자동차가 현대종합상사와 함께 투르크메니스탄 교통청에 27인승 대형버스 '뉴 슈퍼 에어로시티' 400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15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번 공급 계약은 약 6000만 달러(약 733억원) 규모로, 단일 버스 계약으로는 2016년 500대 공급 건에 이어 역대 2번째로 큰 규모다.

현대차는 2008년 500대를 시작으로 4년마다 투르크메니스탄 교통청에 버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2012년 200대, 2016년 500대 등 현재까지 총 1200대를 공급한 바 있다.

이러한 공급을 바탕으로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슈하바트에 운행 중인 시내버스는 모두 현대차 '에어로시티'



지난 2016년 투르크메니스탄에 공급된 현대자동차 '에어로시티'.

이며 올해 신규 계약된 '뉴 슈퍼 에어로시티' 또한 시내버스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뉴 슈퍼 에어로시티'는 기존 차량 대비 후방 카메라, 후방경보 장치 등 안전 및 편의 사양을 대폭 확대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오는 5월부터 버스 생산을 시작해 '투르크메니스탄 중립국 선포일' 25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12월 12일에 맞춰 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한솔그룹, 모든 상장사에 감사위원회 도입

투명성 강화, 주주 신뢰 제고

한솔그룹은 그룹 내 상장 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위원회 설치를 확대하면서 투명경영에 본격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에 감사위원회를 운영해왔던 한솔홀딩스와 한솔제지, 한솔케미칼 이외에 나머지 상장 계열사인 한솔테크닉스, 한솔인티큐브, 한솔로지스틱스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주총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기존 상근감사 체제에서 감사위원회로 변경,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산하에 있는 위원회로 회사의 업무 감독 및 회계감독권을 갖고 있다. 특히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현행 상법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솔그룹은 현 상장 계열사들의 경우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감사위원회 도입을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주들과의 신뢰 제고를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솔그룹 관계자는 "이번 감사위원회 도입 확대는 투명경영 강화와 감사업무 독립성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주주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차선"이라며 "향후에도 주주 가치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코로나19에... SKT, 온라인 주주총회 추진

질의응답도 온라인으로 진행

주주가 직접 주주총회장에 가지 않고도 PC나 모바일을 통해 주총 현장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소통하는 온라인 주총 시대가 열린다.

SK텔레콤은 오는 26일 온라인 주주총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시간적·거리적 제약 조건으로 주총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주주들의 편의를 돕고, 주주와의 열린 소통으로 주주 친화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이기도 하다.

SK텔레콤은 주총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들을 위해 본사 스피스홀에서 열리는 주총 현장을 실시간 동영상 중계하고, 온라인상에서 받은 주주들의 질문에 대해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이 주총 현장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주총 참여를 원하는 SK텔레콤 주주는 16일 오전 9시부터 주총이 열린 24일까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주명부(지난해 12월 31일 기준)를 통해 주주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접속 코드를 부여받아 주총 당일 PC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SK텔레콤은 16일부터 주주총회 당일인 26일까지 회사 경영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을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접수받는다. SK텔레콤은 주총 현장과 온라인에서 접수된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을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KT "'올레tv' 홈스쿨링 1500여편 무료"

156개 테마 총 3700여 편 서비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KT가 올레 tv를 활용한 '홈스쿨링' 지원에 나선다.

KT는 이달 말까지 올레 tv '키즈랜드 TV 홈스쿨' 특별관을 열고 156개 테마로 구성된 3700여편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는 국내 IPTV 키즈 서비스 중 최다 규모로, 3700여편 중 1500여편의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핑크퐁, 노부영 등 기존에 유료로 제공하던 인기 콘

텐츠 600여편을 무료로 전환해 키즈랜드 출시 이후 가장 많은 무료 콘텐츠들 제공하게 됐다. 이는 회사 측의 설명이다.

키즈랜드는 주 이용층인 만 3세부터 만 7세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를 위해 누리과정부터 영어, 독서, 생활습관, 신체놀이, 미술놀이 등의 영역으로 나눠 홈스쿨링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KT는 예정보다 길어진 방학으로 육아 고민이 늘고 있는 부모들을 위해 육아 상담 콘텐츠와 휴식 보장 콘텐츠를 준비했다. 오운영, 서천석 박사의 생활별 육아 상담 콘텐츠 200여편을 무료로 제공한다.

/김나인 기자